

목 차

- 편집인 인사말
- 진주시장 축사
- 유네스코 본부 축사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축사

논문

- 21세기의 창의도시: 일본의 사례
- 치앙마이의 창의 도시화를 위한 지역 전통 지식의 보존과 전파
- 창조도시론의 전개와 한국의 상황
- 농촌차원의 문화공간
- 민속예술의 재생을 통한 문화 창의 산업의 진흥: 신명과 흥이 있는 사람들의 도시, 진주를 기대하며

대담

- 팬데믹 시대의 문화예술 활동 : 과제와 극복방안

창의관광 트렌드

- 목적지 생태계의 지렛대인 창의관광

창의도시 소식 및 활동

- 바르셀루스(포르투갈)
- 수코타이(태국)
- 치앙마이(태국)
- 파두카(미국)
- 샤르자(아랍에미리트)
- 비엘라(이탈리아)

문화유산

- 진주검무

창의관광 트렌드

목적지 생태계의 지 창의관광

카롤린 쿠레(Caroline Couret)

창의관광네트워크(Creative Tourism Network®) 대표



창의관광네트워크 : 바르셀로나 - 인간성(城) 쌓기

렛대인



최근에 일어난 혼란은 관광이 어떻게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는지를 부각시켰다. 이런 의미에서 지난 수십 년 동안 표준화된 경제 모델이 부여한 ‘휴가 관광(vacational tourism)’은 수많은 새로운 관광 목적에 대응하면서 ‘직업 관광(vocational tourism)’에 자리를 내주고 있다. 또한 하향식 모델에서 상향식 모델로의 전환은 신세대 여행자들의 초세분화된(hyper-segmented) 요구에 따른 것이다. 다양한 경제 및 사회 모델(즉, 경험 경제, 순환 경제, ‘오렌지 경제’로도 알려진 창조 경제, 그리고 공유 경제)의 출현을 가능하게 한 신기술과 그에 따른 글로벌 차원의 가치 변화로 인해 여행자들의 역량이 강화되었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은 필연적으로 도전과제와 기회를 가져왔다. 우리가 직면해야 하는 과제들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그것들을 기회로 바꾸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주요 과제는 이러한 새롭고 특정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관광산업은 이 부문에 속해있지 않은 모든 분야의 지역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여 공동 창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예가, 예술가, 문화 관리자, 요리사, 농부 등등. 그들이 누구든지 간에 그들을 ‘꿈을 만드는 사람들(dream makers)’이라고 부르자. 그들은 여행자들의 활동을 평생의 경험으로 바꾸어주고, 어떤 경우에는 여행자들의 꿈을 이루게 해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들이 창의적인 관광객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진정성이 있어야 하고, 지역 전통과 무형유산에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관광 시장의 규칙에도 부합해야 한다. 문화와 관광은 자연스러운 파트너가 아니라는 점이 전 세계적으로 입증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한 새로운 과제를 암시한다. 따라서 중소기업, 비영리단체, 네트워크 등과 같은 새로운 중간 형태들이 등장하여 그와 같은 경험의 기획과 마케팅을 돕고 있다. 이는 목적지 또는 지역의 생태계 조성으로 이어지고, 이를 통해 부문 간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공예 분야 및 문화·창의산업(cultural and creative industries, CCI)에 널리 이익을 가져다 준다. 오버투어리즘(overtourism, 과잉 관광),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¹ 유산 손실 등과 같은 부정적인 외부 효과 대신에, 창의관광은 교육, 역량 강화, 포용성, 유산 복구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렛대가 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무형유산을 차별화 요소로 활용함으로써 창의관광으로 스스로(재)창조하고 있는 마을, 도시, 지역들의 실제 사례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조명해보고자 한다.

1. 이것은 도심 인근의 낙후 지역이 활성화되면서 외부인과 돈이 유입되고, 임대료 상승 등으로 원주민이 밀려나는 현상을 말한다.(역자 주)



실제로 이 모델이 가장 성숙한 목적지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목적지에 적용될 수 있다는 점 이외에도, 일부 경우에는 관광 직업조차 없지만 다른 질적인 혜택 중에서도 무형유산과 예술적 노하우를 향상시키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과 관련성이 있다고 인식하는 지역에서는 이 모델이 특히 도움이 된다.

‘창의관광네트워크(Creative Tourism Network)’에 의해 ‘창의 친화적(Creative Friendly)’인 것으로 인증을 받은 목적지들에 대한 사례 연구를 통해 몇 가지 전략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룰레(Loulé, 포르투갈)는 71,000명의 주민으로 구성된 포르투갈 남부의 도시다. 룰레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은 ‘단기 여행객’들로 도시에 와서 만나 질 정도를 머물고 해안가에서 숙박을 한다. 따라서 룰레의 목표는 숙박 관광객 수를 늘리는 동시에, 비수기에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도시 관광을 다양화하는 것이었다.





Loulé

룰레는 오랜 역사에 걸쳐 다양한 문화의 공존으로 인해 매우 풍부한 문화 유산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창의관광이 최고의 선택으로 떠올랐다. 이 도시는 ‘룰레 크리아티보(Loulé Criativo)’라는 브랜드 하에 공예가, 예술가, 축제 주최자, 문화·창의산업, 중소기업, 서비스업, 관광 사업가, 공공 기관 등이 모여 지역 네트워크를 만들었다. 룰레는 그들에게 창의관광네트워크가 지도하는 교육을 제공하였고, 이 네트워크를 통해 창의관광 경험을 공동 설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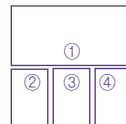
이런 광범위한 경험으로 도시의 DNA는 (재)창조할 수 있었다. 지역 주민과 방문객들이 참여해 콘텐츠의 진정성을 보장하면서 관광 상품으로 전환하는 것을 막은 덕분에 이 도시는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다.

이러한 성과는 두 번째 단계로 이어졌다. 디자인 인큐베이터 조성을 통해 예술 및 창작 분야들을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하면서, 지역 공예가와 공동 창작을 하고자 하는 국제 디자이너들에게 문호를 개방했다. 그 성과 중 하나는 오랜 교역



← 왼쪽

- ① 꽃무늬 카펫(사진 출처 : Creative Tourism Network)
- ② 도기 워크숍(사진 출처 : Loulé Criativo)



- ① 건조식품 워크숍(사진 출처 : Loulé Criativo)
- ② 바구니 공예(사진 출처: Loulé Criativo)
- ③ 구리(사진 출처: Loulé Criativo)
- ④ 아줄레주(azulejo, 포르투갈 도자기 타일)
(사진 출처: Loulé Criativ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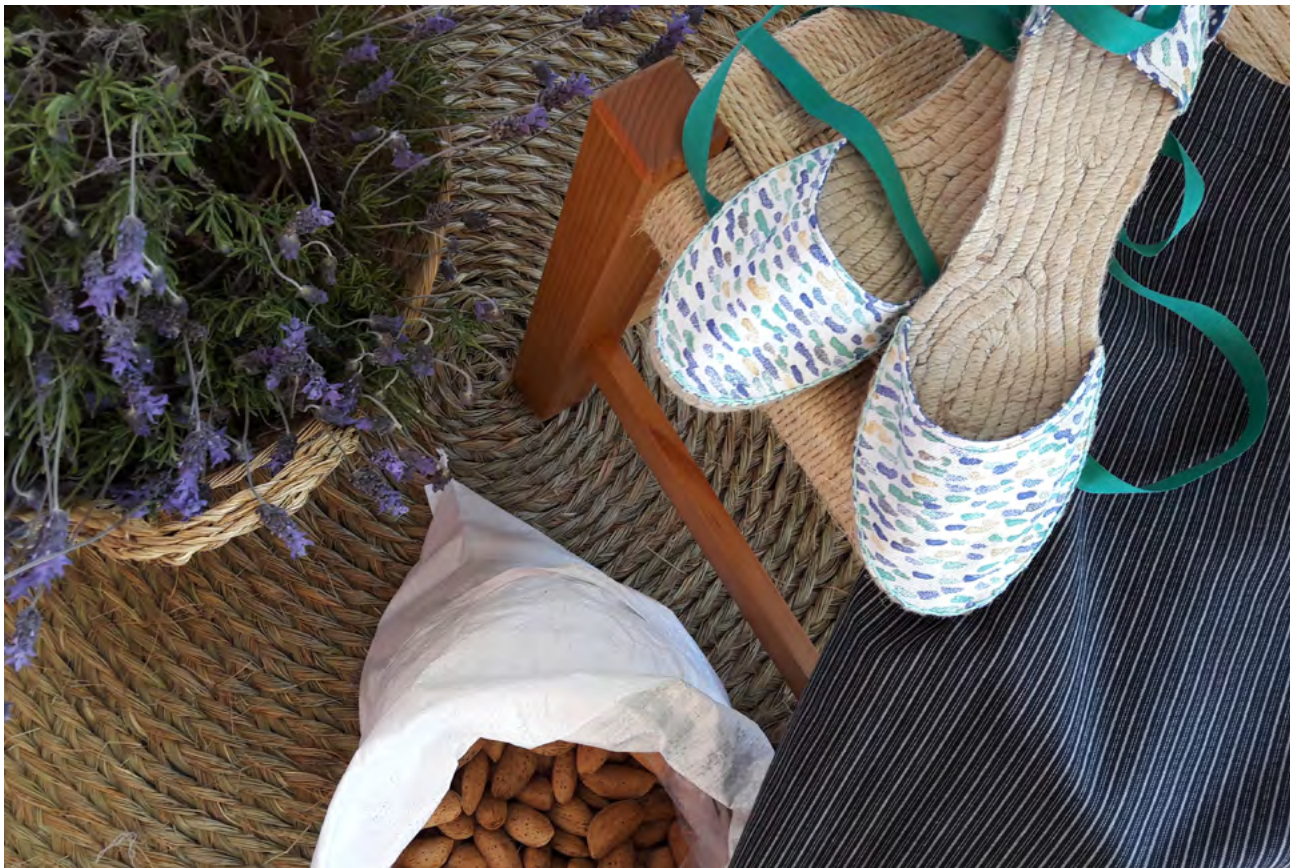
Ibiza Island

의 회복과 유럽 디자인을 위한 룰레의 새로운 리더십이다.

2 이비사 섬(Ibiza Island, 스페인)은 창의관광이 어떻게 무형유산을 관광 요소로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모범 사례다. 이비사섬 의회(지방정부)가 당면한 과제는 국제적으로 해변가와 파티 관광으로 알려진 성숙한 목적지에서 지속가능한 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것이었다. 이비사의 기원은 신석기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이 섬은 페니키아(Phoenician, 기원전 1200년경에서 900년경) 시대부터 오늘날까지 주민들이 기념하고 있는 전통을 통해 유산을 보존해 왔다. 이 외에도, 이비사는 전 세계의 창의적인 사람들을 끌어들이며 섬의 분위기를 활기차게 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의회가 투자한 이 인적 자원들은 새로운 여행자 층(싱글족, 시니어족, 스케치하는 사람, 뜨개질하는 사람 등) 중에서 다양한 대상들을 끌어들이 수 있는 창의관광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있다.

지역 창의 공동체들은 공예, 민속예술, 사진, 미식, 농업 등을 융합하면서 섬의 DNA를 반영하는 체험들을 교육하고 공동 창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또한 이 지역 이해관계자들은 창의관광네트워크가 제공하는 워크숍을 통해 전체 목적지에 대한 홍보를 장려했다. 그 결과, 이비사는 지역 창작자들과 고무적이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즐기려는 새로운 소중한 여행자들을 유치함으로써 섬 관

이비사 공예품(사진 출처: Creative Tourism Network)





가브로보 공예품(사진 출처: Creative Tourism Network)

광이 지속가능한 관광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3 **가브로보(Gabrovo, 불가리아)**는 발칸 산맥 기슭의 안트라(Yantra) 강 골짜기에 위치하고 있다. 먼 옛날에, 이 특별한 장소는 칼, 금속 도구, 선반, 직물, 모피 등의 공예품을 생산하는 데 유용한 곳이었으며, 이것은 도시의 명성에 기여했다. 산업화 이전 시대의 장인 정신을 엿볼 수 있는 사례들을 근처 야외 민족학 박물관인 에타르(Etar)에서 여전히 경험할 수 있다. 에타르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물 구동(驅動) 구조물이 공예 작업장에서 여전히 부분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가브로보는 2017년에 유네스코 공예 및 민속예술 창의도시로 지정되었고, 2019년에는 창의관광네트워크에 의해 ‘창의 친화적’ 목적지로 선정되었다.

또한 가브로보는 수많은 박물관, 축제 및 전통 행사를 통해 문화적 경험을 제공한다. 카니발과 함께 유머 축제(Festival of Humour)는 가브로보를 ‘유머의 수도’로 바꾸었고, 가브로보 주민들의 친절과 호의 역시 이 도시의 특징이다.

일반적으로 가브로보는 창의산업을 촉진하고, 문화 생활에 대한 참여를 강화하며, 지속가능한 도시 개발 정책에 문화를 통합하기 위해 혁신적인 사례를 개발하고 교류하기로 약속했다 (<http://creativecity.gabrovo.bg/en>).

이러한 이유로 창의관광이 가브로보에 대한 통일된 정체성을 창출하기 위해 등장하면서, 지역 이해관계자들의 부문 간 연계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이 도시를 세계 관광 시장에 인식시키고 있다. 실제로, 가브로보 시는 다양한 문화 단체와

Gabrovo



협력하여 창의관광네트워크가 보급하는 모범 사례에 맞게 창의관광을 설계하고 있다.

Barcelos

4 바르셀루스(Barcelos, 포르투갈)는 지난 수백 년 동안 이 도시 유산의 핵심을 이루어 왔고 오늘날 그 차별적 가치를 상징하는 공예 및 민속예술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면서 비슷한 접근방식을 취했다. 이 지역사회의 창의성은 점토, 자수, 직물, 목재, 철, 가죽, 고리버들 제품 등 다양한 예술 분야의 장인 작업뿐만 아니라 현대 미술에도 잘 반영되어 있다. 그로 인해 2017년에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에 가입할 수 있었다.

전략적 개발의 중심에 문화·창의산업을 둔 바르셀루스는 사회를 참여시키고 청소년 고용과 포용을 강화함으로써 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해 창의관광에 의존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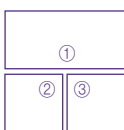


바르셀루스는 여러 해에 걸쳐 모든 유형의 관광객을(순례자들까지도)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창의적인 워크숍과 행사를 제안하고 있다.

전 세계의 많은 목적지들은 위의 도시들과 비슷한 전략을 개발하여, 그들의 상황, 특정한 문제 및 자원에 맞추어 가치 사슬을 생성하고 있다. 예를 들어, 카니발 축제를 상시적인 창의관광 경험으로 전환한 레시페(Recife, 브라질), 창의관광이 사회 응집력 강화의 도구가 된 메데인(Medellín, 콜롬비아), 비수기에 관광 활동을 유지하기 위해 창의관광을 선택한 마들렌 제도(Magdalen Islands, 캐나다), 특히 밀레니얼 세대를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지역에서 경험을 창출하는 키토(Qito, 에콰도르), 창의관광에서 스테이크이션²을 장려할 수 있는 방식을 발견한(특히 팬데믹 상황에서) 지중해 연안에 있는 비오와 페르피냥(Biot and Perpignan, 프랑스)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모든 목적지들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추구한다.

- 비수기에 경제 활동 유지
- 교육, 멘토링, 국제 홍보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업가정신 증진
- 연중 내내 그리고 전체 지역에서 관광 활동 균형 유지
- 오버투어리즘의 위협에 대응
- 주민들 간 및 주민과 방문객 간의 연계 재구축
- 무형유산 보존
- 다양한 지역 이해관계자들을 참여시켜 지역의 DNA 재창조
- 차별화된 관광 상품으로 국제적인 입지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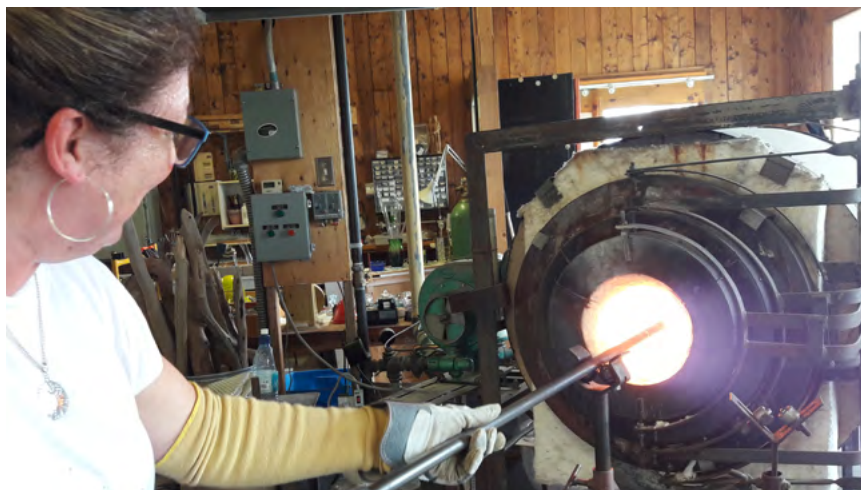


← 왼쪽

① 수탈 페인팅 워크숍, 바르셀루스 시
② ~ ③ 유리 불기, 마들렌 제도
(사진 출처 : Creative Tourism Network)



① ~ ② 유리 불기, 마들렌 제도
(사진 출처 : Creative Tourism Netwo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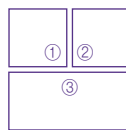
2. 머물다(stay)와 휴가(vacation)를 합성한 말이다. 휴가철에 먼 곳으로 떠나지 않고 집이나 집 근처에서 휴가를 즐기는 것을 의미한다.(역자 주)



- 문화·창의산업 허브를 통합해 해외의 창의적인 기업가 및 중소기업 유치

사례들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목적지들이 자신들의 지역에서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공통된 우수 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 아주 작은 표현물부터 시작해 무형유산의 풍요로움을 인식한다.
- 전국 관광이라는 진부한 틀에 빠지지 말고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한 무형유산에 초점을 맞춘다.



- ① 유리 불기(사진 출처 : Creative Tourism Network)
- ② 마들렌 제도(사진 출처 : Creative Tourism Network)
- ③ 메데인, 콜롬비아
(사진 출처 : Creative Tourism Network)



- 창의적 경험을 설계할 때 진정성(authenticity) 대 정교함(sophistication)을 우선시한다.
- 관광객을 경험에 항상 적극적으로 참여시킨다.
- 다양한 목표 대상을 만족시키기 위해 관객을 세분화하고, 그에 따라 맞춤형 된 경험을 제공한다.
- 많은 지역 이해관계자들(공예가, 예술가, 문화 관리자, 농부, 관광 사업자 등)과 협력하여 공동으로 창작하면서, 부문 간 접근방식을 취한다.
- 제도적인 측면을 강요하기 보다는 모든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목적지의 DNA와 서사(narrative)를 (재)창조한다.
- 다른 지역들과 경쟁하기 보다는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현재와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 이러한 조언은 더욱 적절하다. 실제로, 국가 간 이동성이 제한되어 있는 이 시기에 봉쇄는 창조적 활동, DIY, 인간 가치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높였고, 창의관광은 스테이케이션을 통해 관광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적합한 옵션으로 여겨진다. 또한, 이는 보다 지속가능한 산업을 향한 관광산업의 전 지구적 발전에 있어 변곡점을 나타낸다. 물론 지금과 같이 불확실한 시기는 인간의 가치에 더 중점을 두고 여행의 본질과 문화 교류를 회복하는 새로운 형태의 관광 관리를 위한 시험장이 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공예 및 민속예술 무형유산의 창조적 전승은 지속가능한 도시 개발을 위한 창의 산업을 촉진하는 최선의 방법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 중 현재 진주가 가장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